

2019년 6-1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19. 6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최근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한국은행(2019.5)]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1분기 일본 성장률 전기비 0.6%, 유로존 0.4%

- 미국은 4월 실물지표들이 감소하고, 체감지표들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IMF는 올해 조세 감면과 국방지출 확대에 예상보다 높은 2.6% 성장 전망
- 일본은 올 1분기 소비 감소에도 투자가 증가하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0.6%로 높아지고, 유로존 역시 역대 성장률이 0.4%로 상승
- 중국은 4월중 생산과 수출 등 실물지표들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OECD는 미국과의 무역갈등 지속 등의 우려로 올해 6.2% 성장 예상
-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통화당국 관계자들의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 발언으로 안전통화 수요 약화
-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약세, 미국의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으로 하락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소폭 증가, 소비 감소, 투자 증가세

-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소폭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투자 증가세는 둔화
 - 4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1.6%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하면서 0.3% 증가

□ 금융 : 4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6월 초(6.3~6.10일) 금리 하락·원/달러 환율 반등

- 4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3개월 만에 증가한 데다 중소기업 대출도 약간 더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1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과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주요 통화당국 관계자들의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 발언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에 역내 결제 수요 및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숏 커버 등으로 반등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 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함에도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대다수 업종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0.2% 감소
 - 제조업ICT와 중공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 경공업에서는 증가세로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과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에서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년비 1.5%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9% 증가, 전월비 기준 4.6% 감소

□ 고용 : 4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6% 증가

- 4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고, SOC및기타 서비스업에서도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0.6%로 하락

□ 수출입 : 5월 수출 -9.4%, 수입 -1.9%, 무역흑자 23억 달러

- 지난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4% 감소한 459억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43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로는 선박류와 자동차, 일반기계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

1. 해외경제

□ 미국 : 4월 생산·소비 감소, IMF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로 상향

○ 지난 4월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다르게 감소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부문간 혼조세가 지속. IMF는 올해 미국경제가 조세 감면과 국방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당초 2.3%)

- 산업생산은 기계류와 전자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전월비 -0.5%)과 유틸리티(-3.5%) 부문의 동반 감소 여파로 2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고, 소매판매도 자동차 및 부품 판매(-1.1%) 등의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2016.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와 현재 평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
-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제조업 일자리의 소폭 증가에도 전월비 증가 폭이 확대(+18.9만명 → +26.3만명)되고,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
- IMF는 올해 미국경제가 조세 감면과 국방 및 비국방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2.3%)보다 높은 2.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9	3.4 (3.0)	2.2 (3.0)		3.1 (3.2)				
산업생산	3.9	1.3	1.0	0.0	-0.5	-0.4	-0.5	0.2	-0.5
(IT 생산)	6.3	(3.6)	(-1.2)	(-0.5)	(-0.6)	(-0.3)	(0.6)	(-0.1)	(0.6)
내구재수주	7.9	2.6	-1.5	1.1	0.3	0.5	-2.6	1.7	-2.1
소매판매	4.9	1.1	0.2	-1.6	0.1	0.8	-0.3	1.7	-0.2
소비자물가	2.4	0.5	0.4	0.0	0.2	0.0	0.2	0.4	0.3
실업률(%)	3.9	3.8	3.8	3.9	3.9	4.0	3.8	3.8	3.6
무역수지(10억US)	-627.7	-163.4	-171.1	-60.8	-154.6	-52.7	-50.0	-51.9	-50.8
ISM 제조업지수 ¹⁾	58.8	59.6	56.9	54.3	55.4	56.6	54.2	55.3	52.8
소비자 신뢰지수 ²⁾	130.1	132.6	133.6	126.6	125.8	121.7	131.4	124.2	129.2
경기선행지수 ³⁾	110.1	110.9	111.4	111.4	111.6	111.4	111.6	111.9	112.1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3월 실물지표 부진, 올 1분기 실질GDP 전기비 0.6% 성장

- 3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수주 확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1분기 증가율은 동반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 올 1분기중 소비(-0.1%)가 소폭 감소하고, 투자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수입(-4.6%)이 수출(-2.4%)보다 더욱 감소한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0.6%로 상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국내총생산(GDP)	0.8	-0.6	0.5			0.6			
광공업생산	1.0	-0.7	1.3	-0.9	0.1	-2.5	-2.5	0.7	-0.6
민간기계수주	5.1	1.5	-3.2	-0.1	-0.3	-3.2	-5.4	1.8	3.8
소매판매	1.7	0.9	0.7	-0.8	0.7	-1.3	-1.8	0.4	0.2
소비자물가	1.0	0.5	0.3	-0.3	-0.3	-0.3	0.1	0.0	0.0
실업률(%)	2.4	2.4	2.4	2.5	2.4	2.4	2.5	2.3	2.5
무역수지(10억엔)	-1,225	-551	-1,251	-739	-56	-558	-1,418	332	528
경기선행지수 ¹⁾	99.9	99.5	98.1	98.2	97.1	96.6	96.4	97.1	96.3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4월 실물지표 둔화, OECD 올해 성장률 6.2%로 하락 예상

- 지난 4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수출도 다시 감소하면서 2분기 실물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우려. OECD는 미국과의 무역갈등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6.2%와 6.0%로 하락 예상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GDP)	6.6	6.5	6.4		6.4				
산업생산	5.7	6.0	5.7	5.7	6.5	-	5.3	8.5	5.4
고정투자(누계기준)	5.9	5.4	5.9	5.9	6.7	-	6.1	6.3	6.1
소매판매	8.3	9.0	8.3	8.2	8.3	-	8.2	8.7	7.2
소비자물가	2.2	2.3	2.2	1.9	1.8	1.7	1.5	2.3	2.5
수출(달러화기준)	9.9	11.7	4.0	-4.4	0.9	9.1	-20.7	14.2	-2.7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3월 실물지표 부진, 역대 1분기 성장률 전기비 0.4%

- 3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정체 등 실물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이고, 체감지수도 2016.1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 올 1분기 성장률은 독일(0.4%)과 이탈리아(0.2%)가 소폭 성장하면서 0.4%로 상승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3/4	4/4	11월	12월	1/4	1월	2월	3월
국내총생산(GDP)	1.8	0.1	0.2			0.4			
산업생산	0.9	-0.1	-1.2	-1.3	-0.9	0.8	2.0	-0.1	-0.3
소매판매	1.6	-0.1	0.8	0.8	-1.3	0.7	0.9	0.5	0.0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2.1	1.9	1.9	1.5	1.4	1.4	1.5	1.4
무역수지(10억유로)	194.5	41.8	44.3	15.2	16.0	55.7	17.2	20.6	17.9
경기체감지수 ¹⁾	111.2	110.9	108.9	109.5	107.4	106.0	106.3	106.2	105.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안전통화 수요 약화 · 두바이유 60달러선까지 하락

-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과 ECB 관계자들의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 발언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 달러/유로 환율은 2개월여 만에 1.13달러로 상승
-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약세 지속, 미국의 원유재고 급증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WTI유와 두바이유는 한때 50달러선과 60달러선까지 하락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8				2019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10일
엔/달러	113.70	112.94	113.57	109.69	108.89	111.39	110.86	111.42	108.29	108.45
달러/유로	1.1604	1.1312	1.1317	1.1467	1.1448	1.1371	1.1218	1.1215	1.1169	1.1312
미 국채 (10년만기)	3.06	3.14	2.99	2.68	2.63	2.72	2.41	2.50	2.12	2.15
WTI유	73.3	65.3	50.9	45.4	53.8	57.2	60.1	63.9	53.5	53.3
두바이유	80.0	74.9	58.6	52.4	61.4	65.6	67.6	72.1	63.2	61.5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소폭 증가, 소비 감소, 투자 증가세

○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소폭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투자 증가세는 둔화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6.5%)와 석유정제(11.2%)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비 1.6%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전문·과학기술(3.2%)과 교육(1.6%)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0.3%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3.2	2.7*	2.1* (0.5*)	2.9* (0.9*)	-1.7*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2.3* (0.4*)	2.4* (0.8*)	1.9* (0.1*)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9.4* (-4.0*)	-5.3* (3.2*)	-17.4* (-9.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6.5	2.2	-8.7* (-6.0*)	-5.7* (1.8*)	-7.2* (-0.8*)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1 (0.5)	2.6 (-0.6)	-0.5* (-0.7*)	0.9 (1.1)	-1.9* (-2.7*)	-0.5* (1.5*)	0.7* (0.7*)
광공업생산지수	2.4	1.3*	0.1 (0.8)	4.3 (-1.5)	-2.1* (-2.9*)	-0.2 (0.2)	-3.8 (-3.7)	-2.3* (2.1*)	-0.1* (1.6*)
제조업생산지수	2.2	1.2*	-0.1 (0.6)	4.6 (-1.4)	-2.1* (-3.0*)	0.0 (0.3)	-3.8 (-3.8)	-2.4* (2.3*)	-0.2* (1.7*)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0.8 (0.3)	2.7 (0.4)	1.1* (0.3*)	2.4 (1.3)	-0.2 (-1.5)	0.8* (0.5*)	1.5* (0.3*)
소매판매액지수	1.9	4.2*	3.8 (-0.2)	3.0 (-0.1)	1.7* (1.3*)	4.3 (0.3)	-1.9 (-0.5)	2.4* (3.5*)	1.4* (-1.2*)
설비투자지수	14.1	-3.7*	-13.5 (-7.7)	-6.0 (0.0)	-19.6* (-5.5*)	-17.0 (1.9)	-26.9 (-10.4)	-15.6* (10.1*)	-6.3* (4.6*)
건설기성액	10.1	-5.2*	-9.7 (-3.8)	-7.9 (-3.7)	-8.3* (3.0*)	-10.7 (3.5)	-12.2 (-6.5)	-2.8* (8.9*)	-5.6* (-2.8*)
동행종합지수(2010=100)	107.2	109.4*	109.6	109.8	109.8*	110.0	109.7*	109.9*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0*	99.9	99.4	98.7*	99.1	98.6*	98.5*	98.5*
선행종합지수(2010=100)	109.3	112.3*	113.2	113.3	113.6*	113.5	113.5*	113.3*	114.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100.1*	99.9	99.1	98.4*	98.6	98.3*	98.2*	98.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전월비 -4.2%)와 비내구재(-0.2%) 및 준내구재(-0.2%) 등의 판매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비 감소 전환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2.7%)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류(8.1%)에서는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4.6% 증가하고, 건설기성액은 건축(-2.7%)과 토목(-3.0%)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8%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한 반면에,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장단기금리차 등이 하락한 반면에, 구인구직비율과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비 0.4% 상승

□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0.7% 상승

- 5월 소비자물가는 통신(전월비 -0.2%)과 오락·문화(-0.4%), 식료품·비주류음료(-0.5%) 등에서 하락한 반면, 교통(2.3%)과 음식·숙박(0.2%), 주류·담배(0.4%),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에서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0.2% 상승
- 4월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공산품(전월비 0.3%)을 비롯해 농림수산물(1.3%)과 서비스(0.2%) 등 대다수 부문에서 동반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0.3% 상승(3개월 연속 상승세, 전년동월비 기준 0.6%)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1.9	1.5	1.5 (0.3)	1.6 (0.5)	1.8 (0.0)	0.5 (-0.4)	0.8 (-0.1)	0.5 (0.4)	0.4 (-0.2)	0.6 (0.4)	0.7 (0.2)
근원물가	1.5	1.2	1.4 (0.5)	1.1 (0.0)	1.1 (0.0)	1.1 (0.4)	1.2 (0.2)	1.3 (0.4)	0.9 (-0.1)	0.9 (0.2)	0.8 (0.1)
생산자물가	3.5	1.9	2.1 (0.4)	2.8 (1.0)	1.5 (-0.6)	0.3 (-0.5)	0.4 (-0.1)	0.1 (0.1)	0.5 (0.3)	0.6 (0.3)	-
근원물가	3.1	1.6	1.9 (0.3)	2.4 (0.5)	1.1 (-0.3)	0.3 (-0.2)	0.3 (0.0)	0.2 (0.1)	0.3 (0.2)	0.5 (0.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4월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상당 폭 확대

- 지난 4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3개월 만에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도 전월보다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큰 폭 확대 (19.3월 +1.1조원 → 19.4월 +6.6조원, 대기업 +1.6조원, 중소기업 +5.0조원)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대출취급 노력 지속과 부가세 납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확대
 - 대기업 대출도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
- CP는 전월과 달리 순발행 기조로 전환 (19.3월 -0.3조원 → 19.4.1~20일 +1.0조원)
- 회사채는 분기말 만기도래 규모 확대 영향에도 비교적 양호한 발행 여건에 힘입어 순발행 기조를 지속 (19.3월 +1.3조원 → 19.4월 +0.2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비 보합 (19.3월 +0.5조원 → 19.4월 0.0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4월말 잔액
	연중	4월	연중	4월	연중	2월	3월	4월	
■ 은행 원화대출	38.1	6.6	42.7	6.5	12.0	4.3	1.1	6.6	843.8
(대 기업)	-3.5	0.5	5.0	3.8	3.2	-0.2	-2.3	1.6	157.1
(중소기업)	41.6	6.1	37.6	2.6	8.8	4.5	3.5	5.0	686.7
<개인사업자>	27.8	2.2	25.0	2.4	2.9	1.7	2.3	2.4	321.4
■ 회사채 순발행	-3.5	0.5	5.2	1.1	5.0	2.0	1.3	0.2	..
■ CP 순발행	2.3	1.9	0.8	0.9	3.9	-0.4	-0.3	1.0	20.6
■ 주식발행	13.9	2.9	10.1	1.8	0.6	0.3	0.5	0.0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4월중 금융시장 동향).

- 4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3월 +2.9조원 → 19.4월 +4.5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데다, 수도권 분양 및 입주 관련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3월 +2.8조원 → 19.4월 +3.6조원)
- 기타대출도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19.3월 0.1조원 → 19.4월 +0.9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4월말 잔액	
	연중	4월	연중	4월	연중	2월	3월		4월
은행 가계대출	58.9	4.7	60.8	5.2	3.6	2.5	2.9	4.5	838.6
■ 주택담보대출	37.2	3.3	37.8	2.5	5.0	2.4	2.8	3.6	619.5
■ 기타대출	21.6	1.3	22.6	2.7	-1.4	0.0	0.1	0.9	217.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4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6월 초(6.3~6.10일) 금리 하락·원/달러 환율 반등

- 국고채(3년) 금리는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전기비 -0.3% → -0.4%)과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1.5% → 1.25%), 주요 통화당국 관계자들의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6.3일 1.58% → 6.10일 1.53%, 0.03%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호주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와 연준 및 ECB 관계자들의 경기 안정화 정책 시사 발언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이후에 역내 결제 수요 및 역외 시장 참가자들의 숏 커버 등의 영향으로 반등
(6.3일 1,182.1원 → 6.10일 1,185.2원, 3.1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1/4	2/4	3/4	4/4	1/4	5월	6.10일
국고채(3년)	2.08	2.22	2.12	2.01	1.82	1.69	1.59	1.53
회사채(3년,AA-)	2.63	2.80	2.77	2.45	2.29	2.16	2.08	2.05
CD(91일)	1.64	1.65	1.65	1.65	1.93	1.90	1.84	1.82
CP(91일)	1.79	1.82	1.82	1.82	1.97	1.98	1.93	1.93
원/달러	1,088.2	1,063.5	1,114.5	1,109.3	1,115.7	1,135.1	1,190.9	1,185.2
원/100엔	966.5	1,001.5	1,014.8	981.2	1,013.2	1,028.2	1,085.8	1,087.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중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4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1.7%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8.3%)와 반도체(3.4%), 자동차(3.3%) 등에서 증가함에도, 전자부품(-12.1%)과 기계장비(-7.4%), 화학제품(-3.7%) 등 대다수 업종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2%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1%)와 중공업(-0.5%)에서는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경공업(1.1%)에서는 증가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1차금속(-1.8%)과 전자부품(-1.2%), 기계장비(-1.1%)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11.2%), 반도체(6.5%), 자동차(2.5%), 등 대다수 품목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1.7%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4)는 반도체를 비롯해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상승한 반면에,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기준 0.9%, 전월비 기준으로는 0.6% 각각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5.1%로 전월비 3.7%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가 감소세로 전환(0.9% → -1.1%,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되고, 재고 증가폭이 확대(4.6% → 5.9%)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

□ 서비스업생산 : 4월중 전년동월비 +1.5%,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전년동월비 -1.8%)과 숙박·음식점(-1.7%), 도소매(-0.6%)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보건·사회복지(10.5%)와 정보통신(3.5%), 전문·과학·기술(2.5%) 등에서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5%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1%)와 금융·보험(1.1%) 등에서 감소한 반면, 전문·과학·기술(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7%), 교육(1.6%)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 전체 기준으로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9% 증가, 전월비 기준 4.6%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연간	4/4	1/4	2월	3월*	4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9.9	100.2	89.6	105.6	106.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4.3	-2.1	-3.8	-2.3	-0.1	1.6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109.8	98.9	88.0	105.1	106.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4.6	-2.1	-3.8	-2.4	-0.2	1.7
섬 유	136.7	-3.1	-6.7	-4.2	-8.9	-9.7	-9.9	-5.8	2.1
화 학	831.5	3.5	2.3	-0.5	-2.9	-3.8	-4.1	-3.8	0.5
철 강	604.5	1.6	-3.0	-2.7	-2.4	-4.3	-0.7	-1.6	-1.4
반도체	1,218.3	10.9	20.2	17.5	5.7	5.9	2.5	3.4	6.5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9.0	2.5	-0.3	-0.9	-3.5	-2.3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21.2	-16.2	-6.1	-5.7	2.6	9.4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16.8	-8.5	-13.2	-13.3	-9.0	-0.3
기계, 장비	835.8	13.5	-2.9	-2.1	-11.4	-12.2	-9.6	-7.4	-1.1
자동차	1,066.4	-2.7	-1.4	16.6	2.5	0.3	-0.9	3.3	2.5
조 선	221.1	-29.2	-13.5	8.3	9.6	2.8	14.4	20.9	5.9
- 중 공 업	-	2.6	2.2	5.0	-2.0	-3.4	-2.5	-0.5	-2.0
- 경 공 업	-	0.1	-3.1	2.0	-2.3	-5.7	-2.4	1.1	-1.0
- 제조업ICT	-	7.1	11.3	6.1	-2.3	-1.9	-3.3	-2.1	0.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10.3	104.5	99.4	108.6	107.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2.7	1.1	-0.2	0.8	1.5	0.3
도소매	211.3	0.7	1.5	1.9	-0.6	-3.9	-1.2	-0.6	-1.1
운수, 창고	90.3	1.6	2.1	3.0	1.2	0.6	0.0	-0.7	0.3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0.6	-1.3	-1.9	-2.9	-1.7	0.3
정보통신	79.9	1.6	1.4	-0.8	3.1	3.0	1.6	3.5	1.5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3.3	1.0	0.7	2.4	1.5	-0.7
부동산	31.8	1.2	0.2	3.3	-2.9	-1.9	-4.0	-1.8	-0.1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4.2	0.4	-1.5	0.6	2.5	3.2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0.2	-0.9	-0.2	2.4	1.7
교 육	106.0	0.0	0.1	0.7	-0.7	-2.9	-0.2	0.2	1.6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10.3	8.4	7.7	9.4	10.5	0.0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0.6	2.2	2.8	0.4	0.5	1.2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3.0	-2.2	-3.5	-2.6	0.5	-0.4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5.1	-1.8	-3.4	-1.9	-4.0	-1.5
- ICT서비스업	-	2.7	0.9	-1.7	3.4	4.4	0.8	3.9	-4.6

자료 : 통계청.

주 : *은 잠정치.

5. 고 용

□ 취업자 수 : 4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6% 증가

○ 4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고, SOC및기타 서비스업에서도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0.6%로 하락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전년동월비 감소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양상(전년동월비 -2.4% → -1.2%)
- 농림·어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6.6% → 0.9%)에 그치고, SOC및기타서비스업에서도 증가율이 하락(1.4% → 1.0%)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다시 감소세(0.0% → -1.5%)를 보이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도 전월보다 감소폭이 약간 확대(-0.1% → -0.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교육서비스업(6.2% → 7.7%)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가 확대된 반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7% → 4.5%)과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 → 6.2%)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3.1% → -3.9%)에서 감소세가 이어진 여파로 전월보다 증가율이 하락(2.9% → 2.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4.1%로 전월(3.8%)보다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26,725	26,822	27,015	26,971	26,638	26,461	26,232	26,346	26,805	27,038
전년동기비	1.2	0.4	0.1	0.3	0.1	0.7	0.1	1.0	0.9	0.6
농림·어업	0.5	4.8	4.4	6.1	8.7	9.6	10.9	11.8	6.6	0.9
제조업	-0.4	-1.2	-2.0	-1.9	-2.8	-3.1	-3.7	-3.3	-2.4	-1.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0.3	0.5	0.4	1.1	0.4	1.5	1.4	1.0
건설업	6.4	2.3	2.3	2.8	1.7	-0.4	-0.9	-0.1	0.0	-1.5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2.6	-2.3	-1.7	-0.9	-1.8	-1.0	-0.1	-0.6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4.1	3.9	3.7	1.2	2.5	1.0	0.2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2.1	0.7	0.4	0.7	0.3	2.6	1.4	3.5	2.9	2.8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4.0	3.9	3.8	3.9	4.4	3.7	3.8	4.1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5월 수출 9.4% 감소, 수입 1.9% 감소, 무역수지 흑자 23억 달러

○ 지난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4% 감소한 459억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43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對중국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

- 수입은 중간재와 소비재가 소폭 증가한 반면에,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원유 수입액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3.3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1% 상승한 반면에, 도입물량도 13.5% 감소하면서 금액으로는 10.8% 감소한 60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1~5월
수출	5,737 (15.8)	6,049 (5.4)	1,536 (1.7)	1,545 (7.7)	1,327 (-8.5)	395 (-11.4)	470 (-8.3)	488 (-2.0)	459 (-9.4)	2,274 (-7.4)
수입	4,785 (17.8)	5,352 (11.9)	1,303 (7.8)	1,393 (12.9)	1,234 (-6.8)	365 (-12.5)	419 (-6.6)	448 (2.6)	436 (-1.9)	2,119 (-3.9)
무역수지	952	697	233	152	93	30	51	40	23	1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5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 선박류와 자동차, 일반기계 제외한 10개 품목 수출 감소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대폭 하락과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재고조정 지속, 중국 스마트폰 수요 정체에 따른 對중국 수출 부진, 기저효과(2018.5월 44.4%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
- 자동차 : 對EU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신차 출시 효과와 친환경차에 대한 글로벌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부품 : 아세안·CIS 지역으로 진출한 현지 기업들의 완성차 판매 호조에 따른 조립용 부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중동 지역의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부품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우리나라 주력 선종인 LNG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수출 호조, 2017년 수주 선박의 본격 인도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증가세
- 디스플레이 : TV 수요 확대에 따른 OLED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 확대에 따른 LCD 패널가격 하락과 우리 기업들의 생산량 조정으로 인한 LCD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수요 위축과 지난해의 기저효과(2018.5월 75.7% 증가) 등에 따른 휴대폰 완제품 수출 부진, 해외 기업들의 완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철 강 : 주요국들의 공급 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인한 물량 감소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섬유 :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섬유재고 증가 우려에 따른 생산 감소,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상황 지속 등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세
- 석유제품 : 수출단가 하락과 전년도 수출 급증(41.5%)에 따른 기저효과, 중국·대만 등 아시아 정제설비 증설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

- 석유화학 :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부진과 미국발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중국에서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과 우리 기업들의 CIS 지역에 대한 대규모 유전 모듈 납품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 가 전 : 냉장고 생산 라인의 국내 일부 이전에도 TV를 중심으로 중동시장 위축과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쿼터 소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
- 컴퓨터 : 주요 품목인 차세대 저장장치(SSD)의 기업용 서버수요 감소, 낸드(NAND) 단가 하락 지속, 전년도 수출 급증(28.0%)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1~5월
자동차	3.8	-1.9	-13.1	17.6	4.7	2.7	-1.3	5.7	13.6	6.7
자동차부품	-9.5	-0.1	-4.3	10.4	3.0	-3.0	-0.8	-0.1	-7.5	0.0
선박류	23.1	-49.6	-68.3	2.1	-24.7	-46.6	5.3	53.6	44.4	-4.1
일반기계	11.4	10.2	10.0	13.3	0.6	2.4	-1.4	0.3	5.1	1.4
철 강	20.0	-0.7	-6.3	6.0	-1.8	-3.9	-4.6	-7.7	-7.7	-4.2
석유화학	23.5	11.9	11.0	10.3	-10.0	-14.4	-10.9	-5.7	-16.3	-10.5
석유제품	32.0	32.3	34.2	27.0	-4.7	-11.0	-1.2	-2.7	-9.2	-5.2
섬 유	-0.5	2.5	-4.6	4.7	-7.0	-5.0	-11.8	-5.6	-3.9	-6.0
가 전	-22.1	-18.3	-26.4	-8.2	-6.1	-11.8	-6.4	-1.3	-1.6	-4.2
무선통신기기	-25.5	-22.7	-16.9	-31.8	-27.2	-15.5	-32.4	-4.0	-32.2	-24.3
컴퓨터	9.5	16.9	8.8	-9.5	-33.7	-33.2	-38.4	-36.6	-27.2	-32.9
반도체	57.4	29.4	30.3	8.3	-21.4	-24.8	-16.7	-13.7	-30.5	-21.9
디스플레이	9.0	-9.9	-2.1	-6.8	-11.6	-11.0	-16.4	-9.2	-13.4	-11.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5월 실적은 잠정치 기준.

부 록	최근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	---------------------------

한국은행(2019.5.31일)

- 미국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 상승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연준 등은 잠재 생산능력 확대로 총공급이 늘어나면서 경기 호조에 따른 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대가 실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현재의 경기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잠재성장률 추이

-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이전 기간과는 달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근접
 - 연간 상승률이 2010년 1%에서 올해 2%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
 - * 최근 5년(2015~19년)중 1.8%로, 직전 기간(2010~14년, 1.4%)보다 크게 확대(부문별로는 자본투입의 성장 기여도 확대(+0.3%p)가 가장 크게 기여)
 - * 지난해와 금년중 잠재성장률 상승에는 생산성 향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생산성 기여도: 2017년 0.6%p → 2018년 0.8%p → 2019년 0.9%p)

<표> 기간별 연평균 잠재성장률(%)

	CBO (19.1월)	IMF (19.4월)	OECD (19.5월)
2000~04년	3.3	3.0	3.0
2005~09년	2.0	2.2	2.2
2010~14년	1.4	1.4	1.6
2015~19년	1.8	1.8	1.9

<표> 요소별 잠재성장률 기여도(%)

CBO 기준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2015년	0.4	1.0	0.6
2016년	0.3	1.0	0.6
2017년	0.3	0.9	0.6
2018년	0.5	0.9	0.8
2019년	0.4	1.1	0.9

□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 최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게 된 데는 ▲ 기업투자 회복 ▲ 노동

시장 호조 ▲ 생산성 제고 등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

- (기업투자 회복) 미국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기업들의 양호한 재무 상황과 자금조달 환경 및 자본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크게 확대
- (노동시장 호조) 경제활동참가율이 2015년 이후 핵심 연령층(25~54세)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고, 실업률도 크게 하락
 - 장기간의 경기 및 노동시장 호조가 구직 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 촉진(positive hysteresis effect)
 - 장기간의 경기확장 효과, IT기술 발전 등으로 모든 기술 수준에서 노동 수요가 고르게 증대(mismatch 완화)
- (생산성 제고) 2010년대 들어서 생산성이 둔화 추세를 지속해 오다 지난해부터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17년 0.6% → 2018년 0.9% → 2019년 1.0%

- 지난 2015년 이후 뚜렷해진 무형자산 투자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증대 등이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2%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생산성 증대가 R&D 투자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면서 그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파급될 가능성(CBO, 2020~29년중 잠재성장률 1.9% 전망)
 -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경제는 대외부문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이 뒷받침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
 - 다만,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소 불안정할 소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6.10)	(6.11)	(6.12)	(6.13)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분기 실질GDP (수정치)  5월 수출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가계수주  5월 소비자물가  5월 소비자물가  5월 고용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소매판매수  4월 산업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산업생산수  5월 산업생산  5월 소매판매  5월 고정투자  5월 소매판매  5월 산업생산
(6.17)	(6.18)	(6.19)	(6.20)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소비자물가(수)  4월 수출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무역수지(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경기선행지수  5월 생산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소비자물가
(6.24)	(6.25)	(6.26)	(6.27)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소비자신뢰지수  6월 소비자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내구재수주잠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무역수지(수)  5월 소매판매(잠)  6월 경제계간지수  191분기 실질GDP (확정치)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산업생산(잠)  5월 실업률  6월 소비자물가예  5월 개인소비  5월 산업활동동향
(7.1)	(7.2)	(7.3)	(7.4)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실업률  6월 ISM 제조업지수  6월 수출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소비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ISM 비제조업지수  5월 무역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소매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6월 고용보고서